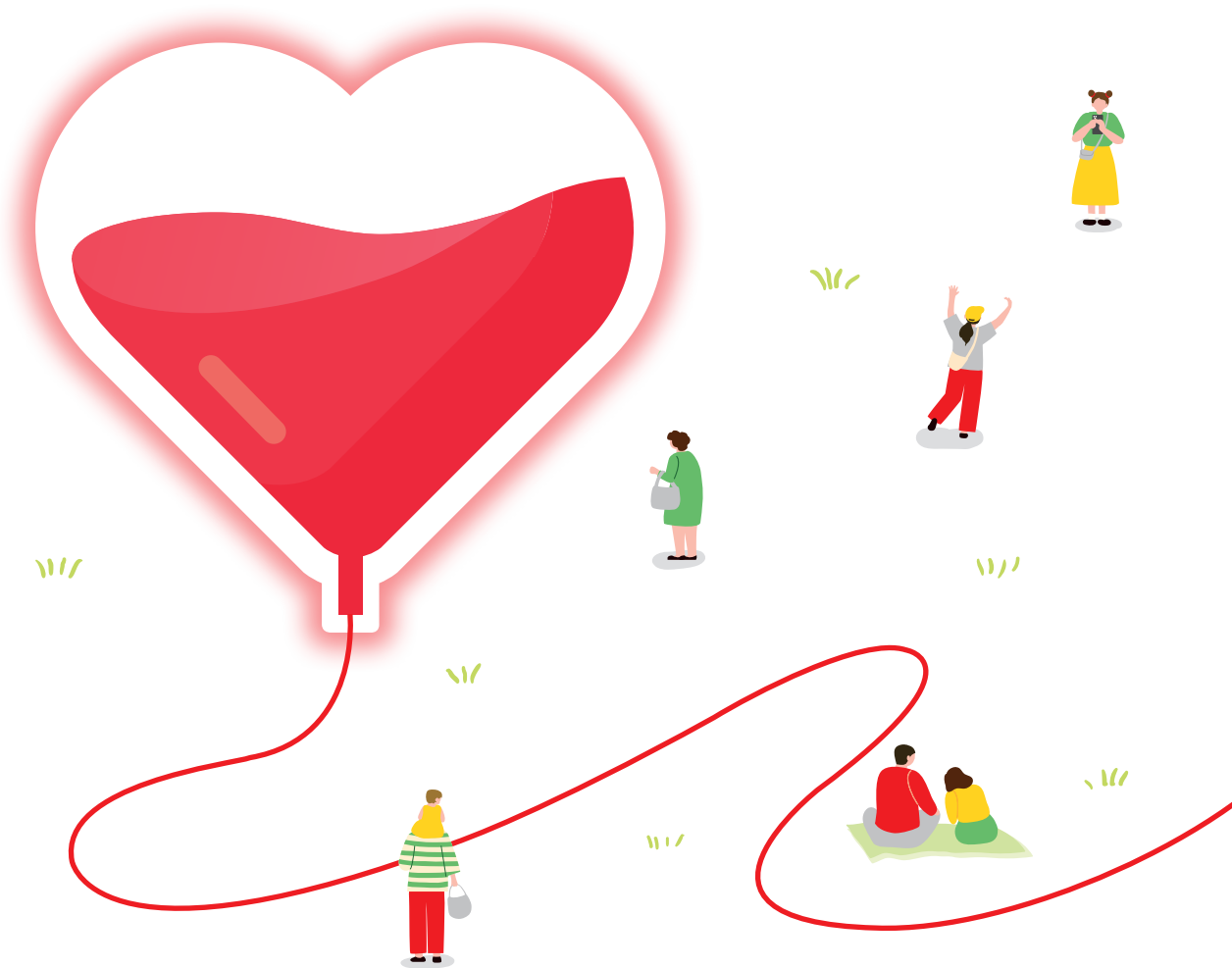


나눔은 사랑입니다

2025 Vol.91



CONTENTS

Prologue

- 03 협회장 인사말
- 04 당신은 우리 가족의 천사입니다
- 05 숫자로 보는 2025

이슈

- 06 국회 정책토론회 - 비혈연간 조혈모세포 이식제도 개선 논의

나눔

- 10 이주영 기증자 인터뷰 - 누군가로부터 시작된 생명 나눔 릴레이
- 12 서태호 후원자 인터뷰 - 세 번의 기증, 20년의 나눔
- 14 제24회 조혈모세포 기증 감사의 날 - “강하고 아름다운 당신들께 감사를 전합니다”
- [KMDP 사람들] 김명국 홍보대사 인터뷰 - “당신의 비명을 들어줄 사람이 있나요?”

감사

- 20 김여옥 님(백혈병 진단 후 2차 이식) 인터뷰 - 생사를 넘은 그에게 남은 길
- 22 환자 편지 - 건강과 평온, 따뜻한 기쁨이 함께하시길 ...
- 24 재외동포환자 편지 - 비행기 타고 멀리 날아온 마음
- [KMDP 사람들] 서포터즈 10기 ‘다운’ - 그들과 함께, 뜨거웠던 2025

뉴스

- 28 KMDP 그 밖의 뉴스
- 30 조혈모세포 모집 캠페인 1년의 기록

안내

- 32 후원 안내
- 34 기증희망등록 홍보 캠페인
- 35 결국 이겨낼, 당신의 삶을 응원합니다

발행일 2025년 12월 10일 발행
발행인 이흥기
편집책임 김건중
편집 박리나, 지화정
디자인 그래픽오션
발행처 KMDP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서울 금천구 디지털로9길 65, 15층
T E L 02-737-5533
F A X 02-737-5336, 7
E-mail kmdp@kmdp.or.kr
홈페이지 https://kmdp.or.kr



Prologue 협회장 인사말

“
 KMDP 역시
 여러분의 힘찬 발걸음을
 동력 삼아
 더 많은 삶에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KMDP는 조혈모세포 기증을 통한 생명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다방면으로 뛰었습니다.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조혈모세포 이식건수를 예년의 수준으로 유지하고, 기증희망자 모집 역시 목표한 바를 달성했습니다. 환자와 기증자, 기관 운영 등이 모두 어려웠던 상황을 사회 전반에 알리고자 노력하며 의미 있는 첫걸음을 뒀습니다. 여전히 갈 길은 멀지만 KMDP는 누군가는 꼭 해야만 하는 일, 늘 해왔던 일을 하며 묵묵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올해도 많은 환자들이 새 삶을 찾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식을 하자마자 편지를 보내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10년만에 도착한 편지도 있습니다. 새 삶을 선물해준 기증자의 평생 안위와 건강을 바라는 소중한 마음들입니다. 환자의 무사 완치를 바라는 기증자들의 귀한 마음도 도착합니다.

KMDP는 30년간 조혈모세포 이식이 간절한 환자와 기증자를 이어왔습니다. 서로를 알 수 없어 직접 전하지 못하는 간절하고 진심 어린 마음들을 연결했습니다. KMDP에게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 일인지, 끊임없이 되새기고 마음을 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내년은 붉은 말의 해입니다. 고단하고 힘겨웠던 마음들은 2025년의 푸른 뱀에게 맡겨두고, 붉은 말처럼 뜨겁게 달리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KMDP 역시 여러분의 힘찬 발걸음을 연료 삼아 더 많은 삶에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장

이 흥 기



Prologue

당신은 우리 가족의 천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얼굴 모르는 기증자님. 저는 수혜자 가족의 막내동생입니다.

올해 초, 우리 가족은 믿을 수도, 상상해본 적도 없던 얘기를 들었습니다. 큰오빠의 혈액암 진단 소식이었습니다. 누구보다 강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두 아이의 아버지이자 가장이고, 든든한 형이자 오빠였으며, 믿음직한 장남이었습니다. 그런 오빠에게 급성 백혈병이라니... 가족 모두 밥도 먹지 못한 채 며칠 밤낮을 울며 지새웠습니다.

그러나 환자복을 입고 애써 웃으며 '누구나 걸릴 수 있는 병'이라고 오히려 우리를 안심시키는 오빠의 모습에, 그런 오빠의 눈빛이 사정없이 흔들리는 것을 보면서 우리 가족은 불안과 두려움을 숨겨야 했습니다. 하지만 가족 중 누구도 큰 오빠와 유전자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을 때는 그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기증자를 찾지 못하면 어쩌나, 그때까지 오빠가 잘 버텨줄 수 있을까, 하루하루 피 말리는 나날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기증자님이 나타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가족에게는 큰 축복이고 기적이었습니다. 종교도 없는 저희 엄마가 "하느님처럼 넓은 마음을 가진 천사가 내려왔나 보다"며 평평 우셨지요.

기증자님, 쉽지 않은 결정이셨을 거예요. 기증 과정도 생각한 것보다 더 번거롭고 힘드셨을 것입니다. 그 과정을 기꺼이 감수하고 견디며 기증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덕분에 우리 가족은 아들을, 오빠와 형을, 남편을, 아버지를 잃지 않고 함께 웃으며 다시 평범한 일상을 나눌 수 있게 되었어요.

기증자님의 앞날에 언제까지나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2025년 가을
윤성준 수혜자의 막내동생 올림

Prologu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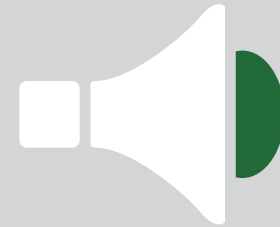
숫자로 보는 2025

※ 2025. 10. 30. 기준



희망박스 지원

250 박스



모집 캠페인

62 회

기증희망자



KMDP 2025 2,500명

KMDP 누적 63,703명

국내 누적 434,094명

기증자



KMDP 2025 284건

KMDP 누적 7,605건

치료비 지원



64명

73,760,000 원

이슈 국회 정책토론회 - 비혈연간 조혈모세포 이식제도 개선 논의

생명 나눔의 숭고한 가치를 지키는 첫 걸음

조혈모세포 이식은 생명 나눔의 숭고한 가치를 실현하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식을 받기까지 이식조정비, 기증자 관리비 등 여러 비용이 발생해 환자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입니다. 이런 이유로 관련 비용이 16년째 동결되어 기관 또한 해마다 오르는 의료비와 물가상승분을 따라가기에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환자와 기증자, 기관 모두를 위한’ 더 나은 환경을 만들고 생명 나눔의 가치를 굳건히 지켜나가기 위해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이에 9월 19일, 국회도서관 소강당에 국회와 정부 부처, 기관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비혈연간 조혈모세포 이식조정 제도 개선’에 대한 정책토론회의 장이 열렸습니다.



▲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열린 ‘비혈연간 조혈모세포 이식제도 개선 논의’ 국회 정책토론회



“기증자와 수혜자 모두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현실의 벽을 허물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모색되길 바란다.”

▲ 개회를 선언하는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

이 자리를 마련한 것은 소아과 전문의 출신인 이주영 개혁신당 국회의원입니다. 그는 “생명을 지키고 나눔의 숭고한 가치를 되새기기 위한 자리”로 토론회의 의의를 밝히며, “기증자와 수혜자 모두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현실의 벽을 허물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모색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 천하람 원내대표, KMDP(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이흥기 회장과 원종호 부회장, 맹호영 이사, 정낙균 대한조혈모세포이식학회 이사장, 김대식 고려대 의대교수, 정연준 가톨릭조혈모세포은행장, 김희선 보건복지부 혈액장기정책과장, 박종현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관리실장, 유철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 박정숙 한국혈액암협회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는 KMDP 이흥기 회장입니다. 이 회장은 이식조정기관의 어렵고 복잡한 역할에 따른 중요성을 설파하며,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구조적·제도적 불합리성에 대해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는 “법적 지위를 기반으로 지원이 탄탄한 뇌사장기기증과 다르게 조혈모세포기증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라며 “제도적 형평성을 확보해 의료급여를 확대하고 보험비 환급 절차 간소화와 기증자에 대한 정당한 예우, 기관의 재정적 지원이 시급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발제를 하고 있는 이흥기 KMDP 회장

“
법적 지위를 기반으로 지원이
탄탄한 뇌사장기기증과 다르게
조혈모세포기증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대식 고려대 의대교수(대한혈액학회)는 “조혈모세포 이식은 골수 기능이 망가진 고위험 환자에게 생존을 위한 마지막 치료법”이라며 “최근에도 치료비 비용 부담으로 치료를 포기한 환자가 있었다. 더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루빨리 급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열린 패널토론에는 이주영 의원이 좌장을 맡고, 정연준 가톨릭조혈모세포은행장, 박정숙 한국혈액암협회 사무국장, 김희선 보건복지부 혈액장기정책과장, 박종현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관리실장, 유철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 박선혜 메디칼업저버 기자가 참여했습니다.

정연준 은행장(가톨릭조혈모세포은행)은 “현재까지 국내에 약 41만 명의 기증희망자를 확보한 상태이지만, 비혈연간 유전자 일치확률이 2만 분의 1로 극히 희소하기 때문에 매칭 확률은 85%에 불과하다”며 “63만 명이 넘으면 95%, 100만 명이 넘으면 그 확률이 98%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여러 제도 개선을 통해 이 수준까지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정숙 사무국장(한국혈액암협회)은 “현재 이식환자의 초기부담금은 720만 원, 그중 약 25% 비용이 환급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 부담은 480만 원”이라며 “최근 이식환자 대상 설문조사에서 이식조정비의 적정비용을 묻는 질문에 60%의 환자가 200~400만 원이라고 대답했고, 무료라는 답변은 단 한 명뿐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고형 장기 기증자와 같은 수준의 예우를 통해 조혈모세포 기증 확대를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희선 과장(보건복지부 혈액장기정책과)은 “2017년 당시 고형장기의 급여화를 먼저 시행하면서 조혈모세포 급여화 까지 이어서 진행했어야 하는데 흐지부지된 것이 지금에 이르렀다”며 “기증희망자 관리 비용이 정체된 것도 사실이고 이에 대한 기관들의 어려움을 매우 공감한다. 다음 중합계획에 이 부분을 조속히 반영해 환자와 그 가족들, 그리고 이식기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박종현 실장(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관리실)은 “조혈모세포 이식환자의 사례가 매우 다양해 표준화와 급여 범위를 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이를 잘 정리해 환급 간소화와 급여화 가능성을 고민하고, 지사를 통한 대국민 서비스 홍보로 기증자 확대에도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백혈병 진단 후 이식치료를 완치 판정을 받았다는 한 참석자는 “소중한 생명을 살려주신 감사한 분들에 대한 예우가 이렇게 부족하지 몰랐다”며 “꼭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조혈모세포 기증자들이 한 일에 걸맞는 대우를 받았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부디 이 토론회의 약속들이 온전히 지켜져 KMDP를 비롯한 두 개의 이식조정기관은 안정성과 신뢰를 확보하고, 환자의 생명이 지켜지며 기증자의 귀한 마음이 존중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글, 사진 = 지화정 담당(기증증진팀)



▲ 패널토론

나눔 이주영 기증자 인터뷰

누군가로부터 시작된 생명 나눔 릴레이

경남 진주에서 서울까지 올라와 조혈모세포 채취를 막 마친 이주영 기증자 (32)를 이대목동병원 병실에서 만났습니다. 며칠간 잠을 못 잤다는 이주영님의 눈에 졸음이 가득하지만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감돕니다. 미루고 있던 숙제를 끝냈기 때문일까요?

“기증등록을 한 지 10년만에 연락을 받았어요. 동생 생각이 제일 먼저 났죠. 환자와 그 가족들이 얼마나 간절할지 잘 알기 때문에 꼭 하고 싶었어요.”



▲ 조혈모세포 채집 후 병실에서 만난 이주영 기증자

동생을 살린 누군가의 용기

“10년 전, 군 생활 중 휴가를 나가려고 집에 전화를 했는데 입대를 이틀 앞둔 동생이 재생불량성빈혈 진단을 받고 생명이 위독하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며칠 전까지도 건강했던 동생이었는데, 믿을 수가 없었죠.”

동생은 혈액수치가 전부 떨어지고 있어 혈액암 중에서도 예후가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형제간 유전자 일치 확률이 높다는 얘기에 휴가를 나와 바로 검사를 진행한 이주영 기증자. 결과는 불일치였습니다. “그때 참 힘들었어요. 울면서 부대에 복귀했던 기억이 나요.”

다행히 3년 만에 공여자가 나타나 이식을 받았던 동생은 무사히 회복해 현재는 직장을 다니면서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결심

이주영 기증자가 조혈모세포 기증 서약을 한 것은 동생을 위해 검사를 한 직후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10년 만에 일치 환자가 나타났다는 연락을 받은 이주영 기증자는 당연히 기증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3일간 입원해 채집을 해야 하는 터라 직장에서 길다면 긴 휴가를 허락할지에 대한 걱정이었지요.

“경상국립대학교병원 내 혈액은행에서 임상병리사로 일하고 있는데, 동료들에게 말하니 먼저 나서서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봐 주시고 많은 편의를 봐주셨어요. 병원에서든 처음이지만 의미 있는 일이라면서 흔쾌히 9일간 특별휴가를 주셨고요. 조혈모세포 이식치료를 하는 병원이기도 하고, 제가 있는 부서 또한 관련이 있는 곳이라 가능했던 것 같아요. 부모님 역시 동생의 일을 겪었기 때문에 적극 지지하셨고요. 동생이요? 무뚝뚝한 경상도 남자라 별말은 안 했지만, 내심 응원했을 거예요.”

*글 = 지화정 담당(기증증진팀)

사진 = 배선영 과장(이식조정팀), 지화정 담당

“기증할 기회가 주어진 것이 행운”

이주영 기증자 주변에는 유독 조혈모세포 기증희망자가 많답니다. 그중 실제 기증 연락을 받은 건 이주영님이 유일합니다. “동생이 공여자를 찾을 수 있었던 건 큰 기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저에게 이 기회가 주어진 것 역시 엄청난 행운이라는 것도요.”

건강한 조혈모세포를 기증하겠다는 일념으로 건강 관리에 전념한 한 달여간이 인생의 특별한 추억이 되었다는 이주영 기증자. “남을 돕는 게 생각만큼 대단하고 거창한 일이 아니더라고요. 작은 불편으로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것만큼 멋진 일이 또 있을까요?”

동생을 살린 누군가의 나눔을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한 기증으로 보답한 이주영 기증자의 생명 나눔 릴레이가 아주 오래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 조혈모세포 채집 중인 모습



나눔 서태호 후원자 인터뷰

세 번의 기증, 20년의 나눔

2005년부터 20년을 넘게 꾸준히 후원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서태호 후원자(52)도 그 중 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력을 들여다보니 그뿐만이 아닙니다. 일생에 한 번도 쉽지 않은 기증을 세 번이나 했습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기증희망 홍보 활동부터 꾸준한 나눔을 실천하며 삶을 풍요롭게 채워가는 서태호 후원자의 짝 찬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 서태호 후원자와 두 자녀



Q.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전남 여수에서 '연안생산연구소'라는 개인 연구소를 운영 중인 서태호라고 합니다. 수중의 인위적인 구조물(인공어초 등)을 설치 후 해양생물의 분포 및 서식환경 등을 조사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Q. 기증희망등록은 언제, 어떻게 하게 되셨나요?

1999년, 광주의 전남대학교에서 DNA 분석방법을 배우다 몸이 좀 무거워서 헌혈이나 하자 싶어 근처 헌혈의 집을 찾았는데 거기서 우연히 조혈모세포 기증 홍보물을 봤어요. 몇 년 전, 성덕 바우만 씨의 골수기증 캠페인을 TV나 언론을 통해 많이 접했던 터라 바로 기증 서약을 했죠.

Q. 그런데 이례적으로 3번이나 기증을 하셨어요.

첫 기증이 2000년이었으니, 1년 만에 연락을 받으신 건가요?

8개월 쯤이었어요. 일치하는 환자가 나타났으니 기증을 할 수 있겠냐고 연락이 왔어요. 16살 여성 환자라는 얘기를 듣고, 앞날이 창창한 아이인데 살려야겠다는 마음으로 흔쾌히 하겠다고 했죠. 골수이식으로 했고요. 2002년에 또 한번 연락이 왔는데 20대 남자 환자라고 하더라고요. 친동생 이랑 비슷한 나이라 마음이 쓰여서 안 할 수 없었어요. 그때는 말초혈 이식으로 진행했어요. 이 환자가 2년 만에 재발했다는 연락을 받고 말초혈 기증을 또 한 번 했죠.

Q. 여러 번 기증을 하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기증을 받는 환자가 건강하게 완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전부였던 것 같아요. 내가 내준 잠깐의 시간, 약간의 불편이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삶을 보장해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많은 분들이 참여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지요.

Q. 당시 징검다리 활동을 한 것도 그 때문이었나요?

그렇죠. 2000년 초반 당시에는 기증자는 물론 기증희망자 수도 많지 않았어요. 환자들에게 조혈모세포 이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기 때문에, 기증자들끼리 주기적으로 모여 어떻게 홍보하면 더 많은 기증희망자를 모집할 수 있을지 회의도 하고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모집캠페인도 함께 했었죠.

Q. 2005년부터 20년간 후원을 해주신 장기 후원자이시기도 하잖아요. 후원을 시작한 계기가 있으셨나요?

그 해에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매월 1%는 후원을 하자고 마음먹었어요. KMDP에 제일 먼저 기부를 시작했죠. 세 번의 기증을 하면서 생명 나눔의 중요성을 느꼈고, 언론을 통해 형편이 어려워 기증을 받지 못하는 환자들이 많다는 소식도 접했거든요. 다른 후원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중단도 하고 해지도 했는데 KMDP 후원만큼은 어떻게든 이어왔어요. 아마 죽을 때까지 하지 않을까요?

Q. 후원자님께 나눔은 어떤 의미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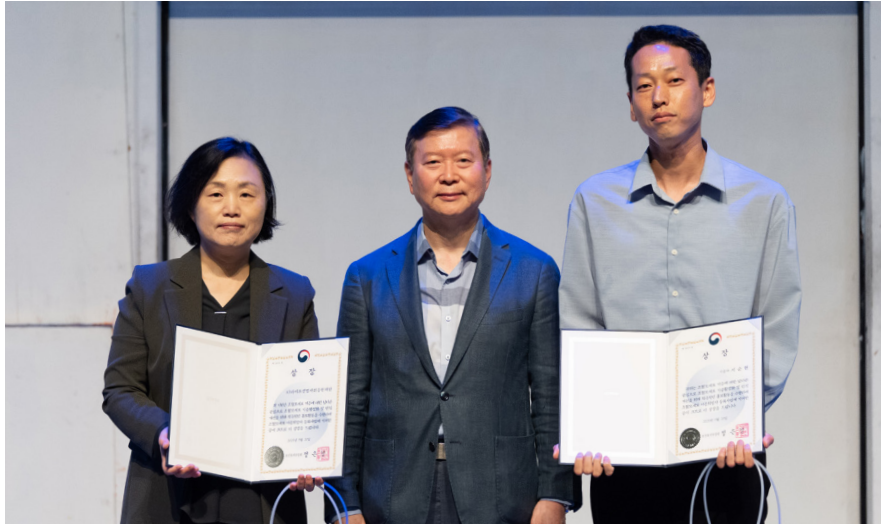
내가 가진 걸 조금씩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한때 제주도에서 굴 농사를 지었을 때가 있었는데 주변의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잘 입지 않는 옷을 나누기도 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나눌수록 제 안에 뭔가가 더 채워지는 기분이 들어요.

Q. 후원자로서 KMDP에 바람이 있다면요?

더 많은 기증자와 환자를 연결해주셨으면 해요. 오래전이지만 친구와 선배의 10대 자녀들이 혈액암 판정을 받고 공여자를 찾지 못해 세상을 달리한 경우가 있었어요. 지금은 물론 그때보다 여건이 더 나아졌지만, 기증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당시 안타까웠던 기억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더 많은 분들이 조혈모세포 기증희망등록과 후원을 해주시면 여전히 이식을 기다리고 있는 환자를 한 명이라도 더 구할 수 있을 거예요. 많이 홍보해주시고, 저도 주변에 열심히 알리겠습니다.

나눔 제24회 조혈모세포 기증 감사의 날

“강하고 아름다운 당신들께 감사를 전합니다”



▲ 이흥기 회장이 KB라이프생명사회공헌재단 조미진 국장(왼쪽)과 서순현 기증자(오른쪽)에게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전달했다.

9월 20일, 서대문 NH아트홀 페인터즈 전용관에서 ‘제24회 조혈모세포 기증 감사의 날’ 행사가 열렸습니다. KMDP의 이흥기 회장과 원종호 부회장, 노봉수 이사, 맹호영 이사, 김건중 사무총장과 조미진 KB라이프생명 사회공헌재단 사무국장, 김명국 홍보대사 부부, 조혈모세포 기증자 및 후원자와 그 가족까지 총 380여 명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올해는 ‘가족 피크닉’을 주제로 다수의 참석자가 어린 자녀와 함께 참석했습니다.

이흥기 회장은 “여러분의 용기와 사랑이 더 많은 생명의 기적을 탄생시키기를 기대한다”는 말과 함께 개최를 선언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상과 감사패 전달식이 이어졌습니다. 20년 가까이 KMDP와 손잡고 기증희망자 확대에 힘써온 KB라이프생명사회공헌재단이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조미진 국장은 “그간 기증희망 등록을 해주신 많은 분들, KB를 비롯해 생명 나눔에 참여해주신 기업 임직원 분들과 함께 받은 상이라고 생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기증자 대표로는 서순현 씨가 기증에 이어 후원과 모집 캠페인까지 적극 참여하며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서 기증자는 “기증 당시 제 결정이 환자와 가족들에게 많은 변화를 가져온다는 사실에 책임감을 느꼈다. 앞으로도 기증희망자 확대를 위해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어 기증자들의 건강과 안정을 물심양면으로 도운 홍진영 건국대학교 코디네이터가 의료진 대표로 KMDP회장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그는 “더 열심히 노력하라는 의미인 것으로 알고 앞으로도 환우들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 페인터즈 공연을 즐기는 참석자들의 모습

기념행사 후 아이들이 손꼽아 기다리던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관객 참여형 미술 공연 ‘페인터즈’는 댄스와 미디어 아트, 시각미술을 결합한 복합문화예술로, 화려한 댄스에 폭 빠졌다가 어느 순간 완성된 작품에 어른아이 할 것 없이 홀린 듯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외에도 행사장 내에서 룰렛 돌리기와 포토박스 등 다양한 이벤트와 피크닉 세트를 기념품으로 준비해 참석자들의 호평을 받았습니다.

자녀 셋과 함께 참가한 곽한순 기증자는 “아이들이 어려서 오늘을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후에 이날 사진을 보면서 아빠가 이런 일을 했다고 얘기해줄 수 있을 것 같아 뜻깊다”고 말했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이를 위해 자신의 일부를 기꺼이 내어주는 마음은 비할 데 없이 숭고하고 아름답습니다. 기증자 분들의 선한 용기가 우리 사회 구석구석 따뜻한 바람을 불어넣기를 기대합니다.

*글 = 지화정 담당(기증증진팀)
사진 = KMDP



“아이들이 어려서 오늘을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후에 이날 사진을 보면서 아빠가 이런 일을 했다고 얘기해줄 수 있을 것 같아 뜻깊다.”

[KMDP 사람들] 김명국 홍보대사 인터뷰

“당신의 비명을 들어줄 사람이 있나요?”



“내게 소중한 일부를 나눠 한 생명을 살리는 고귀한 일이니까요. 젊을 때 할 수 있는 일 중 가장 뜻깊은 경험일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바람이 불고 별이 흔들릴 때도 누군가 나를 불러준다면, 간절하게 나를 붙잡아 준다면 건널 수 있어. 우리는 이미 별을 가지고 있으니까.”

KMDP 홍보대사로 활동 중인 김명국 배우를 성남아트센터 연극연습실에서 만났습니다. 10월 24일부터 3일간 성남아트센터 앙상블시어터에서 상연하는 연극 ‘바람 불어 별이 흔들릴 때’의 연습이 한창이었습니다. 조혈모세포 기증희망캠페인 현장을 누비던 인자하고 편안한 아버지 얼굴은 오간 데 없이 배우의 얼굴을 한 김명국 님이 호탕하게 맞이해줍니다. 팔랑이는 질문들에 세월의 추를 달고 나온 묵직한 답변들로 인터뷰 내내 가슴을 울린 김명국 배우. 그가 인생의 답을 찾기 위해 끝없이 파고들었던 순간들, 가혹했던 자신의 아픔을 타인을 위한 나눔으로 승화한 이야기를 풀어놓습니다.

바람 불고 별이 흔들릴 때

“바람’은 내면의 욕심이자 외부에서 온 풍파예요. ‘별’은 각각의 존재를 의미하죠. 이 연극은 나와 주변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고, 아우성치고, 뛰어내리고, 부서지는 모습을 인지하지 못하면 살아도 죽은 거라고 말해요. 제 역할인 ‘미지의 노인’은 이 모습들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인간 근원의 질문을 던지는 존재이자 각자가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는 ‘이상’ 같은 것이죠.”

<바람 불고 별이 흔들릴 때>는 김명국 배우가 25년간 열연한 연극의 고전 <고도를 기다리며>와 상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고도’와 ‘미지의 노인’은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지만 그 실체를 스스로도 알지 못한다는 점에서 같아요. ‘하늘은 우리의 외침으로 가득하구나, 그러나 습관은 우리의 귀를 들어막는다’는 <고도를 기다리며> 속 절규 역시 이 연극과 결을 같이 하죠.”

문득 주변을 떠올립니다. 사망에서 귀가 아플 정도로 많은 말들이 들려오지만 아픔도 슬픔도 괴로움도 고통도 한 날 애깃거리로 전락하고, 웃음거리로 소모해버리는 사회. 진심으로 들어주는 이가 없어 말하지 못하고 안에서 끓고 썩히다 서서히 무너지는 사람들, 아니 우리를 나를 돌아봅니다. 김명국 배우는 “이런 사실을 빨리 깨닫고 귀를 열고 내 얘기를, 다른 사람들 외침을 들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픔을 거름 삼아 타인의 생명을 지키는 부부

부부는 2003년부터 매월 한 번씩 서울 대학로에 위치한 마로니에공원으로 향합니다. 띠를 두르고 혈액암 환자들을 위한 조혈모세포 기증을 해달라고 외치고 호소합니다. 25년 전, 햄버거 CF로 오랜 무명생활에서 벗어난 김명국 배우는 2개월만에 아들의 백혈병 진단을 받아들였습니다. 처음부터 예후가 좋지 않아 조혈모세포 이식치료를 고려했지만, 유전자가 일치하는 기증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별 수 없이 60%만 일치하는 제대혈을 이식했지만 병은 재발했습니다. 2003년, 그때부터 김명국·박귀자 부부는 거리로 나섰습니다. 조혈모세포 기증 서약을 해달라고 아들을 살려달라고, 비명과 같은 호소였겠지요.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열악했어요. 저도 그전까지 백혈병은 영화나 드라마에서만 나오는 얘기인 줄 알았으니까요. 조혈모세포는 너무 생소했고, 골수이식에 대한 오해도 컸죠. 그렇게 소리쳐도 사람들 귀에 닿지 않았어요.”

결국 공여자를 찾지 못한 아들은 8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부부의 외침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과 같은 어린 생명들이 치료의 기회도 얻지 못한 채 스러지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그렇게 김명국 배우는 KMDP와 22년의 세월을 함께했습니다.

“하루는 아이 하나가 부모 손을 잡고 찾아왔어요. 마로니에공원 앞에 있는 서울대어린이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아이였어요. 애써주신 덕분에 기증자를 찾아 무사히 이식치료를 받고 건강해졌다고 감사인사를 하는데, 이 활동을 하길 정말 잘했구나 싶었죠.”

어쩌면 그렇게 외친 순간들이 그 귀한 생명뿐 아니라 김명국 배우 또한 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구에게 쉽게 꺼내기 힘들었을 그 무거운 이야기가 부부의 가슴에서 굵고 썩다가 터져버렸을 수도 있으니까요.



젊기에 할 수 있는 가장 뜻깊은 일

그에게 ‘생명 나눔’은 어떤 의미인지 물었더니 다음과 같은 답이 돌아옵니다. “내게 남은 것을 나누는 것보다 더 큰 의미의 나눔이지요. 내게 소중한 일부를 나눠 한 생명을 살리는 고귀한 일이니까요. 젊을 때 할 수 있는 일 중 가장 뜻깊은 경험일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평생을 살면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있겠어요? 작은 결심으로 한 생명을 살리는 경험을 꼭 해보셨으면 합니다.”

자신을 위해, 주변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듣기 싫은 비명예, 아우성예, 부서진 마음들이 내는 간절한 외침에 조금만 귀 기울여달라고 호소하는 김명국 배우. “달음박질치는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듣기 위해 멈춘 그 순간이 내 곁의 사랑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를 구원할 겁니다.”

그에게 ‘고도’이자 ‘미지의 노인’은 무엇일까요? “제대로 된 연기를 했던 연기자로 기억되고, 쓸 수 있을 때 쓰면서 사람답게 살아가는 게 제 바람입니다.”

이미 이룬 것을 ‘바람’이라고 말하는 김명국 배우는 비 온 뒤 굳은 땅처럼 굳건하고 단단해 보였습니다. 생명 나눔의 씨앗을 흩뿌려 모종을 틔워내기까지 반평생을 헌신한 그의 남은 생은 또 얼마나 찬란하게 빛날지 기대가 됩니다. KMDP와 오랜 시간 함께 걸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글 = 지화정 담당(기증증진팀)
사진 = KMDP, 본인 제공



감사 김여옥 님(백혈병 진단 후 2차 이식) 인터뷰

생사를 넘은 그에게 남은 길

한 환자가 KMDP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조혈모세포 기증을 받은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고 싶다면서요. 2019년 급성 골수성백혈병 진단을 받고 2년만에 재발해 올해 조혈모세포 2차 이식을 받은 김여옥 님(62)입니다. 첫 이식 당시, 조혈모세포를 나눠준 오빠 김수현 님과 함께 찾았지요. 뜻밖의 방문으로 모두가 행복했던 날, 김여옥 님과의 풍성한 대화를 되새겨봅니다.

첫 혈액암 진단

“하늘에 뜻을 맡기고 기다렸는데 기적처럼 기증자가 나타났어요. 정말 기쁘고 감사했지요.”

2018년 뇌종양 진단을 받은 이후, 오랜 산약 등반으로 다져온 김여옥 님의 건강은 시시각각 무너져내렸습니다. “당시에도 피가 좋지 않다고 했는데 뇌종양 치료가 급하니 신경을 못 썼어요. 수술 1년 후 건강검진을 받았더니 뇌는 깨끗한데 혈액 쪽에 이상이 있으니 대학병원에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울산대학교병원에서 **골수이형성증후군** 진단을 받았어요.”

서울로 가서 치료를 받아야겠다고 생각한 김여옥 님은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다시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사이 급성 골수성백혈병으로 병이 진행돼 있었습니다. 다행히 5남매 중 첫째인 오빠와 유전자가 일치해 이식을 받았고 숙주 반응이라는 부작용도 전혀 없었지요. 다시 등산을 다니기 시작할 정도로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한 그는 이제 다 지나갔다고 생각했습니다.

※ 골수이형성증후군: 골수 내 조혈모세포의 유전적 이상으로 정상적인 혈액세포를 만들지 못하고 비정상적인 세포가 골수 내에서 축적되는 질환

좌절 속에서도 놓지 않았던 희망의 끈

하지만 2년 후 병이 재발했고, 상황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막막해서 펄펄 울었어요. 오빠의 조혈모세포를 다시 이식받을 수는 없다고 했죠. 수차례 항암 치료를 받으며 오빠의 림프구를 두 번 이식받았지만 암세포는 죽지 않았고, 그때부터는 무슨 약을 써도 효과가 없었어요.”

암담했습니다. 남은 방법은 비혈연간 조혈모세포 이식뿐이었습니다. 기적처럼 공여자가 나타났지만 이식까지의 과정도 쉽지 않았습니. 항암 중 세균이 다리로 들어와 통통 붓고 열이 하루에도 몇 번씩 펄펄 끓다 식었습니다. 통증으로 걸을 수도, 먹을 수도, 잠을 잘 수도 없었습니다. 건강한 조혈모세포를 이식받기 위해 항암치료로 병든 조혈모세포를 모두 소멸시키는 ‘완전 관해’ 상태에 들어야 안전한 이식이 가능한데 약이 듣질 않으니 결국 관해에 들지 못하고 이식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존율 30%라고 했어요. 병원에서 주변 정리를 하고 오라고 했지요. 이대로 죽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감과 굳은 믿음으로 마지막 준비 없이 이식을 받았어요.”



큰 빛을 갠 마음으로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은 그는 숙주 반응으로 온몸이 가렵지만, 심각한 부작용 없이 일상으로 복귀했습니다. KMDP를 방문한 김여옥 님은 몇 번이고 감사 인사를 전하며 두 조카, 임성준 님과 김윤성 님의 이름으로 400만 원을 후원했습니다. 본인은 감사한 마음을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줬으니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요.

“사회에 큰 빛을 쬐어요. 많은 분들이 헌혈을 하고, 공여자 님이 희생을 해주신 덕분에 삶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 빛을 열심히 갠하면서 바른 삶을 살겠습니다.”

적지 않은 나이에 젊어도 견디기 힘든 이식과 항암치료를 수없이 받은 이답지 않게 김여옥 님의 자세는 내내 곧고, 말에는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운 좋게 뇌종양을 발견했고” “때마침 혈액검사를 받았고” “치료방법이 있으니 절망적이지 않았고” “죽지 않으리란 예감이 있었다”는 그의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말들에는 고개를 절로 끄덕이게 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뜻밖의 방문으로 좋은 에너지를 가득 주고 간 김여옥 님의 남은 생이, 자신의 몸을 불살라 주변에 온기를 더하는 촛불처럼 고고하고 아름답게 빛나길 바랍니다.

*글, 사진 = 지화정 담당(기증증진팀)



“ 사회에 큰 빛을 쬐어요. 많은 분들이 헌혈을 하고, 공여자 님이 희생을 해주신 덕분에 삶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 빛을 열심히 갠하면서 바른 삶을 살겠습니다.”

감사 환자 편지

건강과 평온, 따뜻한 기쁨이 함께하시길 ...

새 생명을 얻은 후 다섯 번째 벚꽃을 봅니다. 산수유, 매화, 목련, 복사꽃, 벚꽃이 한 번에 피어나 마치 꽃다발 속을 거니는 듯한 봄입니다. 이제 외래를 다니는 간격도 꽤 길어지고, 원인 모를 기침, 배앓이 고열도 뜸해지면서 병의 기억도 멀어져 갑니다. 그러던 얼마 전, 병원에 갔다가 채혈실 앞에서 기증 전 검사를 하러 오신 분을 만났습니다. 선한 인상에 약간 긴장한 듯한 그 분을 보며 우리 기증자님은 어떠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들었던 설명보다 번거롭고 아프고 피로하셨을 테지요. 그 수고로움을 견뎌주신 덕분에 이렇게 저는 남들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도 찾아다닙니다. 후원하는 곳들도 생기고 주말에는 어르신 분들에게 컴퓨터도 가르칩니다. 살아가다 보면 기증자님에게도 여러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아무쪼록 한 생명을 구하셨다는 자긍심으로 잘 이겨나가시길, 늘 행복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4월, 윤혜지 수혜자

안녕하세요, 공여자님. 처음 인사드립니다. 2015년에 이식을 받았는데 10년 만에 편지를 쓰네요. 그때는 어려서 잘 몰랐는데 제가 공여자임을 헌사 누나라고 불렀었다는 얘기를 부모님께 들었습니다. 저에게는 정말 천사 같은 분이네요. 건강한 피를 이식해주신 덕분에 저는 중학교 1학년 건강한 학생이 되었습니다. 축구와 배드민턴을 좋아하고 MBTI는 ESFP입니다. 덕분에 잘 놀고 잘 웃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2025년 1월, 이연호(가명) 수혜자

1년 전, 기증자님의 고귀한 결단으로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은 수혜자입니다. 이렇게 다시 팬을 들 수 있다는 사실이 기적처럼 느껴집니다. 이식 당시, 저는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었지만 기증자님의 존재가 저의 유일한 희망이자 용기가 되었습니다. 생명부지 관계임에도 가족조차 해줄 수 없는 생명을 나눠주신 그 결단에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감사드립니다. 기증자님의 선하고 용기있는 선택이 제 삶을 구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제 심장은 기증자님의 따뜻한 마음을 품고 뛰고 있습니다. 그 큰 사랑, 평생 가슴에 간직하고 살아가겠습니다. 기증자님의 삶에도 늘 건강과 평온, 따뜻한 기쁨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5년 5월, 고정복 수혜자

안녕하세요, 공여자님. 잘 지내셨나요? 저는 공여자님께서 기증 동의를 해주셨다는 소식을 들은 날부터 늘 감사한 마음으로 항암치료를 버텨왔습니다. 그때는 곧 이식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너무 긴 시간이 걸렸네요. 이 병과 싸우기 시작한 게 2월이었는데, 긴 항암치료를 하는 동안 계절이 지나가는 줄도 모르고 지냈습니다. 그저 아프고 더디고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지 모를 시간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공여자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에 다시 없을 기적과도 같은 선물이에요. 삶을 주시고, 한 아이의 엄마로 남을 수 있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게 생명뿐 아니라 많은 영향을 주셨어요. 저 또한 앞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나누는 삶을 살겠습니다. 공여자님의 삶이 누구보다 더 평안하고 따뜻하기를 온 마음을 다해 바라겠습니다. 작은 감기라도 걸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2024년 12월, 김예슬(가명) 수혜자

감사 재외동포환자 편지

비행기 타고 멀리 날아온 마음

Dear Donor, I am the stem cell recipient from October 12, 2016.
I apologize for this late thank you, as my recovery was severely delayed
by grave Graft Versus Host Disease (GVHD).

I am better now and had hoped to meet you in South Korea
next month, but I learned that policy prohibits our meeting or contact.

I was diagnosed with Acute Myeloid Leukemia (AML)
just after my son was born. Doctors said a matching donor was
my only survival chance. Thank God you were a match and
agreed to the difficult donation process.
Four months later, I received your life-saving gift.

Despite ongoing health issues and hospital visits, I am so happy
to be alive and have spent the last eight years with my wife and son.
I can never repay you, but please know my immense gratitude.

I hope you are healthy, happy, and live a life filled with love.
I know that after a long, prosperous life,
we will eventually meet in Heaven.
With thanks and love, Your stem cell recipient

기증자님께, 저는 2016년 10월 12일 조혈모세포를 선물 받은 사람입니다.
감사편지를 너무 늦게 보내 죄송합니다. 치유한 후 직접 만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었으나
이식편대숙주병으로 회복하는데 시간이 훨씬 더 걸렸습니다.
지금은 상태가 많이 호전돼 한국에 가서 기증자님을 뵙기를 희망했으나,
정책상 만남이나 연락이 금지되어 있음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저는 아들이 태어난 직후 급성 골수성 백혈병(AML)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료진은 조혈모세포가 일치하는 기증자에게 이식을 받는 것이 유일한 생존 기회라고
했습니다. 기증자님과 일치가 되어 하느님에게 감사하고,
어려운 기증 과정에 동의해 주신 당신에게 감사합니다. 암 진단을 받고 4개월 후
저는 당신의 조혈모세포를 선물 받았습니다.

계속되는 건강 문제와 잦은 입원에도 불구하고, 저는 살아있음에, 그리고 지난 8년을
아내와 아들과 함께 보낼 수 있어 정말 행복합니다. 은혜를 결코 갚을 수 없겠지만,
제가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하는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기증자님께서 건강하고 행복하며 사랑으로 가득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가 길고 행복한 삶을 산 후, 언젠가 천국에서 만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감사와 사랑을 담아

2024년 7월, 조혈모세포 수혜자 드림

※ 재외동포 조혈모세포 이식조정사업

KMDP는 조혈모세포 이식이 필요한 재외동포 환자가 한국에 거주하는 혈연 또는 비혈연 기증자에게
조혈모세포를 이식받아 회복할 수 있도록 조정합니다.

▶ 사업절차

환자 거주국 조혈모세포은행 혹은 치료병원에서 이식조정 의뢰 → 기증자 상담 → 환자-기증자 HLA
일치 여부 확인 → 기증자의 조혈모세포 채취일정 조율 → 기증자 건강검진 시행 → 기증자의 조혈모
세포 채취 후 환자 치료병원으로 운송

[KMDP 사람들] 서포터즈 10기 '다운'

그들과 함께, 뜨거웠던 2025

2월 21일

서포터즈 10기 '다운' 창단식. 아직 칼바람이 옷 새를 파고드는 날, 푸릇한 기운을 안은 대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1년간 조혈모세포 기증 인식개선과 기증문화 확산 활동을 위한 출발점이지요. 조혈모세포와 기증 관련 교육부터 히크만 주머니도 직접 만들어보며 앞으로의 활동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합니다.



3월 30일 / 4월 27일 / 6월 29일 / 10월 26일

마로니에공원 기증희망등록 캠페인. 추울 때나 더울 때나 어김없이 거리로 나선 다운은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조혈모세포 기증 서약을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달이 갈수록 조금씩 더 익숙하게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그 모습들이 얼마나 예뻐 보이던지요.



5월 24일

서울 강동구 일자산공원에서 열린 KB라이프생명나눔챌린지 행사에도 다운은 함께했습니다. 다양한 이벤트로 사람들의 발길을 붙잡고 자연스럽게 조혈모세포 기증을 알렸습니다.



6월 28~29일

다운의 워크숍. 지난 상반기 활동을 되돌아보고 더 나은 활동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후원자들을 위해 항암 비니 만들기 영상을 직접 제작하면서 한층 더 끈끈해진 다운 사이. 열정적인 하반기 활동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9월 20~21일

조혈모세포 감사의 날과 청년의 날에 연이어 참여하며 특특히 제 역할을 해준 다운. 그 날의 햇살보다 더 뜨거웠던 다운의 활동으로 일정이 겹쳤던 두 행사를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찬란한 청춘의 한 페이지를 KMDP에 남겨준 서포터즈 '다운' 김태은, 남경미, 박서현, 서희경, 손희경, 유혜린, 임우주, 임채명, 조관형 모두 고맙습니다. 생명 나눔의 가치를 마음에 품은 이들이 앞으로 걸어갈 그 길은 또 얼마나 빛이 날까요? 당신들과 함께한 2025년, 오래 기억하고 늘 응원하겠습니다.

*KMDP 직원 일동

뉴스

KMDP 그 밖의 뉴스

2월 20일

한림성심대와 기증 활성화 업무협약

한림성심대학교와 조혈모세포 기증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간호학부 학생 및 교수 300여 명에게 조혈모세포 기증 교육을 진행하고, 2회의 기증희망등록 캠페인을 통해 210명이 기증 서약을 마쳤습니다.

5월 8일

대한적십자사 헌혈기부권 공모사업 선정

대한적십자사가 주최하는 헌혈기부권 공모사업에 KDMP가 3년 연속 선정됐습니다. 이를 통해 조혈모세포 이식환자 30명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위생소독용품 250박스를 전달했습니다.



9월 20~21일

'청년의 날' 홍보부스 운영

서울마당에서 열린 '2025 청년의 날' 청년정책박람회에 KMDP 기증희망등록부스가 함께했습니다. 74명의 청년들이 기꺼이 자신의 팔을 내밀고 기증희망등록에 동참했습니다.



9월 30일~10월 1일

재외동포청 주최 '세계한인회장대회' 참가

기증자를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재외동포를 돕기 위해 '2025 세계한인회장대회'에 참가했습니다. 각국 회장 및 관계자 200여 명이 방문해 현지 커뮤니티를 통한 사업 홍보를 약속했습니다.

3월 6일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임직원, 헌혈증 228매 기부

한국장기조직기증원(KODA) 임직원들이 헌혈증 228매를 기부했습니다. 2021년 362매, 2023년 131매에 이은 세 번째 기부로 누적 매수는 총 721매입니다. 이렇게 모인 헌혈증은 필요한 환자들을 위해 사용됩니다.

9월 11~13일

ICBMT 2025, 홍보부스 운영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대한조혈모세포 이식학회 국제학술대회(ICBMT 2025)에 참여했습니다. 홍보부스를 운영하며 KMDP 사업을 홍보하고 조혈모세포 기증희망자를 모집했습니다.



10월 20일

서울아산병원 혈액암 환아 물품 지원

KB라이프생명사회공헌재단의 대학생 서포터즈 '조혈모프렌즈'와 KMDP 후원자들이 직접 만든 향암비니와 히크만 주머니를 서울아산병원 혈액암 환아에게 전달했습니다.



9월 24일

목포대와 기증 활성화 업무협약

목포대학교와 조혈모세포 기증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목포대에서 올해 상반기 61명,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날 51명의 학생들이 조혈모세포 기증 서약을 완료했습니다.



뉴스

조혈모세포 모집 캠페인 1년의 기록

조혈모세포 기증희망등록은 하루하루 생과 사의 길목을 오가며 공여자를 기다리는 혈액암 환자들에게 삶의 기적을 선물하는 고귀한 일입니다. 18세 이상 40세 미만의 건강한 청년만이 누릴 수 있는 인생의 가장 뜻깊은 경험이기도 합니다. 올해 전국 36곳, 62회의 거리 캠페인을 통해 만난 2,500여 명의 청년들이 얼굴도 알지 못할 누군가를 위한 고귀한 생명 나눔을 약속했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다 적을 수는 없지만, 용기를 내어 전해주신 따뜻한 마음 하나하나 깊이 새기고 기억하겠습니다.

성공적인 조혈모세포 기증 및 이식을 위해서는 기증자와 수혜자와의 HLA가 일치해야 함

HLA (조직적합성항원, 유전자)가 모두 일치했을 때, 환자에게 이식된 기증자의 조혈모세포가 무사의 생착할 확률이 높아짐 (거부반응 최소화)

기증자와 원자가 부모자식간인 경우 : 5%

기증자와 원자가 형제자매간인 경우 : 25%

기증자와 원자가 타인인 경우 : 0.005%~20%

아주대학교, 대전대학교, 대전보건대학교, 강릉영동대학교, 동양대학교,
경동대학교, 서정대학교, 목포대학교, 광주보건대학교, 경북대학교,
영진전문대학교, 경북보건대학교, 한림성심대학교, 대경대학교, 대구한의대학교,
대구대학교, 경희대학교, 경북과학대학교, 계명대학교, 우석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서정대학교, 차의과학대학교, 송실대학교,
대경대학교, 안산대학교,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중원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송례문, 홍대 레드로드, 일자산잔디공원(KB),
벅스코(ICBMT 2025), 마로니에공원, 서울시청 앞(청년의 날)

(일정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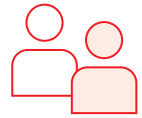
※ 조혈모세포 기증희망등록 신청 문의: 기증증진팀 02-737-5533, 안내 2



“
기증문화 확산을
위해 도와주신
모든 대학 및
기관 관계자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안내

후원 안내



개인 후원

혈액암이라는 거대한 절망 앞에 선 환자들. 삶의 기회를 늘리는
기증희망등록자 모집부터 고가의 치료비, 이식 이후까지...
한 생명을 살리고, 살게 만드는 일에 함께해 주세요.

후원방법

CMS·신용카드: 온라인 후원 신청(QR코드 스캔)
계좌이체: 우리은행 004-649426-13-001
(예금주: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 후원하기

환자 응원 프로젝트

환자에게 필요한 물품 키트를 구입해 완성한 후 KMDP로 다시 보내주세요.
키트 구입비용은 후원금으로, 완성된 물품은 환자에게 전달됩니다.



히크만 주머니
만들기 키트
(1세트당 2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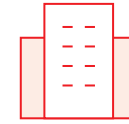
항암 특수비니
만들기 키트
(1세트당 3만 원)



▲ 환자 응원 프로젝트 참여하기

후원문의

02-737-5540
give@kmdp.or.kr



기업 후원

KMDP는 국내 45개 의료기관 및 전 세계 조혈모세포은행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혈액암 환자들이 꼭 한 번씩 거쳐가는 국내 대표 이식조정기관으로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업 및 단체 성격에 맞는 사회공헌을 제안합니다.

참여 방법

현금 후원

환자 치료비 및 이식조정비 등
경제적 후원

물품 후원

환자 및 기증자 예우를 위한 물품,
공연·영화 티켓 등 후원

임직원 참여

거리 모집 캠페인 참여, 1:1 매칭기부,
히크만 주머니·항암 비니 만들기 등 맞춤형 후원

참여 절차

기업문의

기업의 후원
문의 연락

사업기획 및 제안

기업/단체 성격에
맞춘 사업 제안

후원 전달식

행사 진행 및 언론
· SNS 홍보

사업진행

사업 시행
및 모니터링

결과보고

사업 결과보고서
작성

참여문의

02-737-5540
give@kmdp.or.kr

함께하는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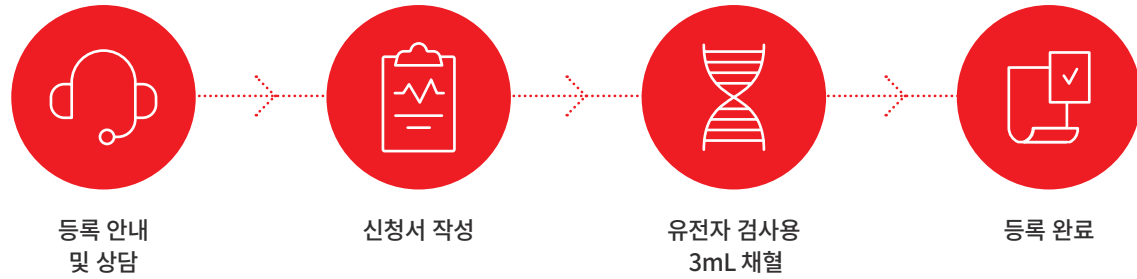
(주)서울129구급 오피스퀵앤화물(주)

안내

기증희망등록 홍보 캠페인

조혈모세포 기증희망등록은 누군가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고귀한 일입니다. 혈액암 완치가 더는 기적이 아닌 당연한 일이 될 수 있도록, 주변 분들에게 생명 나눔의 필요성과 가치를 널리 알려주세요.

기증희망등록 신청 절차



- 등록 자격** 18세 이상 ~ 40세 미만의 신체 건강한 남녀
- 개인 신청** 장소: KMDP 사무국(서울 금천구 디지털로9길 65, 백상스타타워 1차 1503호)
시간: 평일 오전 9시~오후 5시
- 단체 신청** 경찰, 군인, 공무원, 대학교, 기업, 기관행사 등
장소: 출장 가능
시간: 조정 가능
신청방법: 전화 문의(02-737-5533, 안내 2)

주소와 연락처가 바뀌었다면 꼭 알려 주세요.

조혈모세포 기증희망등록 후 주소와 연락처가 바뀌었다면 변경된 정보를 꼭 알려주세요. 그래야만 기증희망자와 HLA 일치 혈액암 환자가 나타났을 때, 신속하게 연락드릴 수 있습니다. (KMDP 기증희망등록자에 한하며, 타 기관 등록자는 해당 기관에 연락)

- ▶ 홈페이지에서 변경하기: www.kmdp.or.kr → 우측 킷 메뉴의 '정보변경' → 변경내용 작성 → 확인
- ▶ 전화로 변경하기: 02-737-5533, 안내 2

결국 이겨낼, 당신의 삶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대구에서 조혈모세포를 기증했던 허규성입니다.

올해는 조금 이른 시기에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2025년 한 해도 건강하게 지낼 수 있었고 이렇게 헌혈증을 보내드릴 수 있음에 감사한 마음입니다.

저는 더 건강한 삶을 위해 본격적으로 달리기를 시작했고, 마라톤 풀코스를 두 번 완주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과연 할 수 있을까?' 싶었지만, 꾸준히 운동하며 준비하다 보니 어느 순간 '할 수 있겠는데?'라는 자신감으로 바뀌더군요. 첫 대회와 두 번째 대회를 비교해보면 기록도 향상되고 몸도 훨씬 건강해진 것을 느낍니다.

이 경험을 통해 환우분들과 그 가족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할 수 있다',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과 스스로에게 보내는 응원이 언제 어느 순간에나 큰 힘이 될 것이라고요. 제가 42.195km를 달린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어려움이겠지만 믿음이 있다면 분명히 이겨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비록 많지는 않지만 한 해 동안 건강하게 살면서 모은 헌혈증을 함께 보냅니다. 작은 정성이지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가을 허규성 드림

지갑 속 잠자고 있는 헌혈증을 기부해 주세요!

헌혈증은 수혈이 시급한 혈액암 환자들에게 요긴하게 쓰입니다. 집안 사람, 지갑 속 잠자고 있는 헌혈증을 KMDP로 보내 주세요. 10대 이상 기부하신 분들에게 기부증서를 보내 드립니다.

- ▶ 발송주소: (08511) 서울시 금천구 디지털로9길 65, 백상스타타워1차 1503호
- ▶ 문의: 02-737-5540



가장 소중한 선물, 희망을 가득 싣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소중한 것으로 가득하지만

그 중에서도 으뜸은

바로 희망입니다.

여러분이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

희망을 싣고 오늘도 날아갑니다.